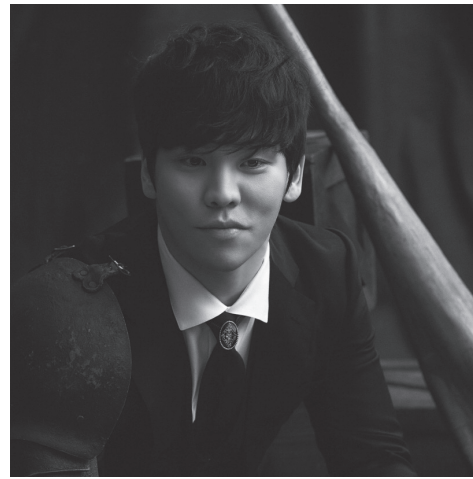


## 공연전시소개



# 5월은 축제의 계절

### 2018 안산국제거리극축제

매년 5월이면 안산의 거리와 광장을 무대 삼아 도시민의 일상과 삶터 이야기를 연극, 퍼포먼스, 무용, 음악, 다원예술 등의 다양한 공연으로 풀어낸다. 5월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안산문화광장과 안산시 곳곳에서 14번째 이야기가 펼쳐진다. 폐막작을 비롯한 국내외 공식참가작 20개, 안산리서치 3개, 거리예술플랫폼 8개, 광대의 도시 15개, 청자유구역#유스컬처 20여 개 등 총 70여개다. 폐막작은 프랑스 극단 룩아모르스(Compagnie Lucamoros)로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던지는 삶에 대한 의문과 고민을 공유하는 거리예술의 대표 단체로, 이번 축제의 폐막에서는 '고갱의 거북이(Gauguin's Turtle)'라는 작품을 선보인다. 4층 철제 구조물 위에서 진행되는 라이브 페인팅쇼 '고갱의 거북이(Gauguin's Turtle)'는 6명의 화가들의 몸짓과 이에 따라 고조되는 내레이터의 목소리, 그리고 생생한 음악이 함께 조화되면서 하나의 작품을 탄생시킨다. 이들은 작품 안에서 끊임없이 재창조되는 퍼포먼스 양식을 활용하여 움직이는 이미지들이 지닌 매력을 보여준다. 예술의 사회적 역할을 이야기하며 시대의 부조리한 현실을 고발하고 물음표를 던진다.

5.5-7 안산일대

### 〈Liminality : 경계를 넘어〉

#### 제17회 의정부음악극축제

개막작은 영국 작품인 대규모 야외공연 〈451〉이다. 레이 브래드버리(Ray Bradbury)의 소설 'Fahrenheit 451'에서 영감을 받은 작품으로 인간 사회의 갈등과 금기의 경계를 넘어 인간다움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던진다. 공간을 에워싸는 사운드, 이동 조형물과 불꽃을 이용해 드라마틱한 연출의 대규모 야외공연으로, 관객들 바로 앞에서 펼쳐지는 불꽃과 밤하늘에 휘날리는 책장은 '타임지가 선정한 2015년 10대 야외공연'에 꼽히기도 했다. 폐막작으로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루지 못한 '비행'에 대한 꿈을 무용으로 표현한 스페인 작품 〈Vuelos (비행)〉이다. 디지털 애니메이션과 거울, 그림자를 이용한 안무, 최면을 거는 듯한 음악 등 다양한 요소로 이루어져있는 무용극으로 인간의 한계를 넘어 '비행'이라는 꿈을 다빈치의 스케치, 그림, 조각 등을 이용해 표현한 작품이다. 어린이들도 다빈치의 예술세계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져 온 가족이 함께 관람하기 좋은 작품이다. 또, 셰익스피어의 비극 '리어왕'을 가장 혁신적으로 표현했다는 평을 듣는 폴란드의 〈Songs of Lear〉, 오래된 도시 안의 사람들이 꿈꾸는 판타지를 넘버벌



그림자극으로 그린 프랑스 작품 <몽유병자들(LES SOMNAMBULES)>이 해외작품으로 공식 초청됐다. 국내작품으로는 연우무대의 뮤지컬 <여신님이 보고 계셔>, 현재의 내가 과거의 나를 만나 위로 받는 창작악그룹 동화의 작품 <시인의 나라>, 트렌디한 각색과 연출로 고전을 현대적으로 표현한 극공작소 마방진의 <토끼전>, 저항하는 인간에 대한 동명소설의 이야기를 모던한 관소리극으로 재탄생시킨 창작집단 희비쌍곡선의 <필경사 바틀비> 등의 작품이 선정되어, 다양한 장르와 연대대의 관객들이 관람할 수 있는 공연들로 채워졌다.

### 5.11-20 의정부예술의전당

### 2018 제13회 서울스프링실내악축제(SSF)

올해 13회째 맞는 서울스프링실내악축제(이하 SSF)가 5월 15일 개막공연을 시작으로 17일까지 세종문화회관 세종체임버홀, 5월 21일 한국가톨릭문화원아트센터 실비아홀, 5월 18일부터 27일까지 예술의전당 IBK챔버홀에서 각기 다른 주제로 실내악 향연이 펼쳐진다. 또한, 5월 19일은 오직 SSF에서만 즐길 수 있는 ‘고택브런치콘서트’는 안동교회와 윤보선 고택에서 열리며, 같은 날 저녁 매년 가장 큰 사랑을 받아온 ‘가족음악회’가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펼쳐진다. 3회에 걸쳐 진행되는 “베토벤 피아노 트리오 전곡” 시리즈에서는 피아노 트리오 장르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곡 중 하나로 평가받는 ‘대공(Archduke)’을 비롯해 총 7개의 피아노 트리오 곡을 통해 베토벤 음악인생의 여정을 느낄 수

있다. 또한 “관객이 함께 만드는 SSF 프로그램”으로 지난 1월 SNS와 이메일로 관객들에게 직접 신청 받은 프로그램 중 선정된 곡을 연주하여 더욱 의미 있는 무대를 선사한다. 이 외에도 바흐, 모차르트, 베토벤, 브람스, 슈베르트 등 클래식한 레퍼토리부터 바이올린 듀오 레퍼토리 중 최고로 꼽히는 신딩(Sinding)의 작품과 프랑스의 대표적인 여류작곡가 샴이나드(Chaminade)와 파랑크(Farrenc)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 공연에 적절히 섞어 16개의 빈틈 없는 공연을 구성했다. 예술감독 강동석을 비롯하여 조영창, 양성원, 김영호, 김상진 등 지난 10여년간 SSF를 지켜온 대표 아티스트들 외에, 올해로 결성 40주년을 맞이하는 칼리히슈타인-라레도-로빈슨 트리오와 장-클라우드 반덴 아인덴, 일리야 그린글즈, 프란츠 헬머슨 등 초특급 해외 초청 아티스트와 이경선, 김현아, 조진주, 임효선, 문지영, 최나경, 노부스 과르텟, 채재일 등 국내외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최정상 아티스트들은 물론, 개교 이래 50여년간 수많은 예술가를 배출해온 예원학교의 재학생들로 구성된 예원심포니오케스트라가 함께해 세대를 뛰어넘는 연주자들이 만드는 하모니로 아름다운 실내악 무대를 선사한다. SSF는 고택브런치콘서트를 제외한 모든 공연이 2만원~7만원이라는 상대적으로 부담 없는 가격대로 서울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고품격 음악회를 표방해왔다. 또한 실내악 공연이기에 한 무대에서 십수명의 탑 아티스트들을 볼 수 있는 정통과 역사성을 가지고 있다.

5.15-5.27 세종문화회관, 예술의전당 등

**그린플러그드 서울2018**  
**이승환부터 자이언티-YB 등**  
**국가대표 아티스트 총출동**

따뜻한 봄날의 행복한 음악축제 <그린플러그드 서울 2018>(이하 그린플러그드 서울) 페스티벌 2차 라인업이 공개됐다. 이디오테잎, 각스, VMC, 등 30팀에 이어 몽환적인 사운드와 독특한 감성의 '쏟애플', 투박함과 세련됨을 넘나드는 '더 모노톤즈', 한국 정통 록의 대를 잇는 '아시안체어샷', 국악에 다양한 장르를 접합시켜 과격적인 음악을 연주하는 '잡비나이'까지 나란히 이름을 올리며 록 장르 안에서 넓은 스펙트럼을 자랑하고 있다. 특히 록밴드 'YB'와 대체불가 공연의 신 '이승환'이 참여한다.

5.19-20 난지한강공원

**제9회 대한민국오페라페스티벌**

오페라극장에서는 6개 오페라 단체가 참여해 라벨라오페라단의 <가면무도회>, 서울오페라앙상블의 <오르페오와 에우리디체>, 누오바오페라단의 <여우뎌>과 국립오페라단 <오페라 갈라>가 관객을 만난다. 자유소극장에서는 울산싱어즈오페라단의 <썸타는 박사장 길들이기>와 코리아아르츠그룹의 판오페라 <흥부와 놀부>가 소극장 맞춤형 오페라를 선보인다. 그랜드 오페라에서는 친구이자 부하인 사람의 아내를 사랑한 남자, 그래서 죽음 앞에서도 사랑하는 그녀의 결백과 행복을 바라던 <가면무도회>의 리카르도, 지고지순한 사랑으로 저승의 세계에서 아내를 되찾는 남자, 그러나 욕망으로 영원히 아내를 잃게 되는 <오르페오와 에우리디체>의 오르페오. 연인과 함께 인간으로의 환생을 꿈꾸었지만 연인의 죽음으로 포악해진 천년 묵은 여우, 하지만 죽은 줄 알았던 연인의 환생에, 사랑을 되찾기 위한 음모를 꾸미는 <여우뎌>의 연우. 등을 통해 오페라의 음모, 질투, 욕망, 배신, 죽음은 모두 '사랑' 때문에 생겨난다. 사랑이 음악을 만들고 사랑 이야기가 오페라가 된다. 불꽃 튀는 사랑 이야기를 오페라극장에서 만나보자. 소극장 오페라로는 모차르트의 <피가로의 결혼>을 번안한 <썸타는 박사장 길들이기>(2015 초연)

와 판소리와 오페라를 결합한 판오페라 <흥부와 놀부>가 공연된다. 한국의 판소리와 서양의 오페라를 융합하여 개척한 '판오페라' 작품이다. 오페라 이야기를 판소리의 도장이 끌고 가고 오페라에 마당극 형식을 차용하여 우리 고유의 극을 오페라로 구현해 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페스티벌에는 여성 연출가들의 열전이 눈에 띈다. 페스티벌에 참가하는 오페라 여섯 작품 중 다섯 편의 연출가가 여성이다. <가면무도회>의 이희수, <오르페오와 에우리디체>의 김재희, <여우뎌>의 김숙영, <국립오페라단 오페라 갈라>의 정선영과 <썸타는 박사장 길들이기>의 양수연이 주인공이다. 여성 연출가들이 대거 포진해 페스티벌을 꾸미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 젊은 성악가들의 등용문으로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바리톤 최병혁, 카운터테너 사성환, 바리톤 정준식, 바리톤 조현일, 바리톤 염현준, 소프라노 이재은, 소프라노 김의지, 테너 위정민, 테너 이사야, 소프라노 김경희와 김민정 등의 활약이 기대된다.

또, 모든 공연의 하이라이트를 모아 '페스티벌 미리보기'라는 부제로 신세계스퀘어 야외무대에서 <오페라 갈라 콘서트>가 무료로 펼쳐질 예정이다. 오페라극장의 경우 입장권은 1만원~15만원이며 한정수량으로 판매되는 페스티벌석은 2만5천원~3만원이다. 자유소극장 공연은 3만원~5만원이다.

4.27-5.27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등

**음모와 정의 그리고 사랑**  
**뮤지컬 <삼총사>**

개막 10주년을 맞아 초호화 캐스팅 라인업으로 돌아온 뮤지컬 <삼총사>은 알렉산드로 뒤마의 '삼총사'를 원작으로, 17세기 프랑스 왕실 총사가 되기를 꿈꾸는 청년 달타냥과 전설적인 총사 아토스, 포르토스, 아라미스가 루이13세를 둘러싼 음모를 밝혀내는 과정을 담은 뮤지컬이다. 탄탄한 스토리, 웅장한 음악, 검술 액션을 비롯한 화려한 볼거리를 고루 갖춰 남녀노소가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작품이다. 초연 멤버 완전체가 다시 무대에 선다. 엄기준, 유준상, 민영기, 김법래는 출연 당시 절묘한 연기 호흡으로 '엄유민법'으로 불리며 작품 흥행의 한 축을



담당하며 사랑을 받았다. 또한, 서지영, 신성우, 조순창, 손준호, 제이민 등 <삼총사>를 통해 뜨거운 사랑을 받았던 배우들을 비롯해 김준현, 손호영, 서은광(비투비), 린지(피에스타) 등이 새롭게 참여해 신선함을 더할 예정이다. 민영기, 박민성, 손준호는 날카로운 추리력과 통찰력을 가진 로맨티스트 아라미스로 분한다. 허풍은 심하지만 의리라면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포르토스 역에는 김법래와 이정수가 캐스팅됐다. 오직 복수만을 위해 살아가는 미모의 간첩 밀라디 역에는 서지영과 안시하, 장운아가 트리플 캐스팅됐다. 달타냥과 첫눈에 사랑에 빠지는 청순한 과리의 여인 콘스탄스 역으로는 제이민과 린지(피에스타)가 캐스팅됐다.

### 3.16-5.27 한전아트센터

## 꿈꾸는 기사

### 뮤지컬 <맨 오브 라만차>

세계를 감동시킨 불후의 명작, 뮤지컬 <맨 오브 라만차>가 오는 4월 한국 관객을 찾는다. 세르반테스의 소설을 원작으로 하는 <맨 오브 라만차>는 작가 세르반테스가 감옥에서 자신의 희곡 '돈키호테'

를 죄수들과 함께 공연하는 극중극 형식으로 진행된다. 자신이 돈키호테라는 기사라고 착각하는 괴짜노인 알론조 키하나는 시종인 산초와 모험을 찾아다니며 우스꽝스런 기행을 벌이지만 특유의 진실함과 용기로 조금씩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다. 국내에서 8번째로 선보이게 된 2018년 <맨 오브 라만차>는 꿈을 좇는 돈키호테의 모습에 더욱 주목한다. 특히 꿈을 향한 돈키호테의 강한 열망이 그의 죽음 이후 마치 바이러스처럼 주변 인물들에게도 전염된다는 점이다. 허망한 꿈을 꾸는 돈키호테를 조롱하지만 결국 그에게 완전히 동화되어가는 주변 인물들의 모습은 돈키호테가 전달하는 메시지를 더욱 강하게 만든다. 세르반테스이자 돈키호테 역에는 오만석과 홍광호가 캐스팅됐다. 돈키호테의 레이디 알론자 역에는 윤공주와 최수진이, 돈키호테의 시종이자 영원한 조력자 산초 역에는 김호영과 이훈진이 캐스팅됐다. 일명 '돈키호테 바이러스'를 통해 잊고 있던 꿈을 떠올리게 해줄 뮤지컬 <맨 오브 라만차>는 4월 12일부터 6월 3일까지 블루스퀘어 인터파크홀에서 공연된다.

### 4.12-6.3 블루스퀘어 인터파크홀

## 5월의 공연 소개

- <가면무도회> G.Verdi / 라벨라오페라단 / 4.27-4.29 오페라극장
- <오르페오와 에우리디체> C.W.Gluck / 서울오페라앙상블 / 5.4-5.6 오페라극장
- <여유던> 서순정 / 누오바오페라단 / 5.11-5.13 / 오페라극장
- <오페라갈라> 한국오페라 70주년 기념 / 국립오페라단 / 5.19-20 오페라극장
- <썬타는 박사장 길들이기> W.A.Mozart / 울산싱어즈오페라단 / 5.18-5.20 / 자유소극장
- <흥부와 놀부> 지성호 / 코리아아르츠그룹 / 5.25-5.27 / 자유소극장
- 야외공연 <오페라 갈라> 4.28 / 신세계스퀘어 야외무대